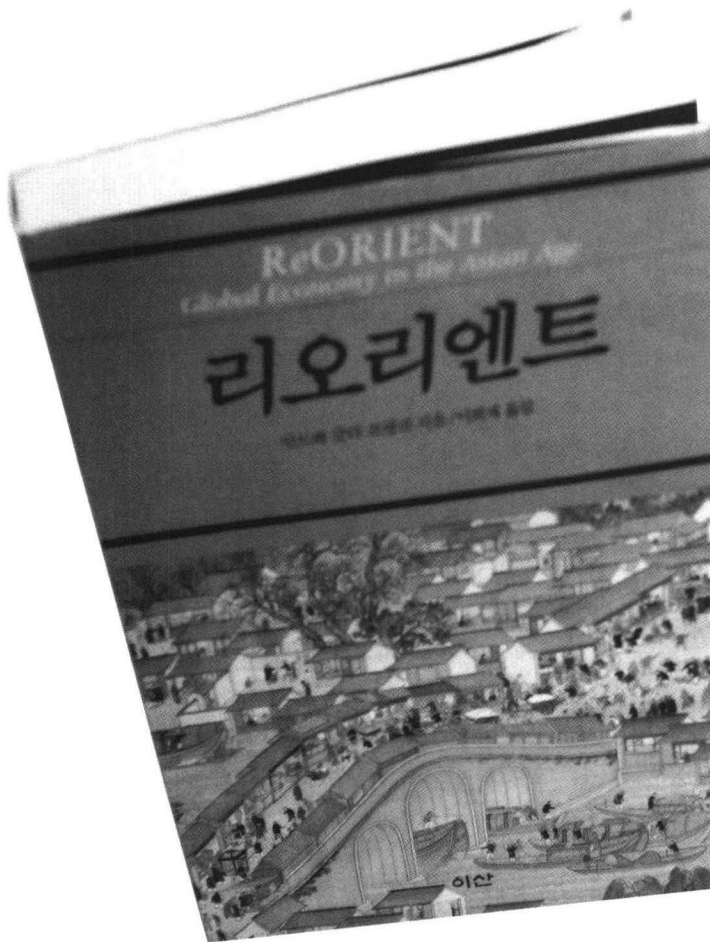


3등칸 유럽인은 어떻게 1등칸 아시아인을 몰아낼 수 있었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난독증에 시달리는 것 같다. 한 쪽만 읽어도 어느새 다른 생각들이 머리를 점령하여 무엇을 읽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에 이른다. 그래도 정신을 가다듬어 억지로 읽다보면 눈의 초점이 흐려지고, 나중에는 먼 곳의 사물은 분간조차 못 할 정도가 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최근에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다. 그 재미가 난독증을 완화시켜주기도 했다. 프랑크가 지었고, 이희재가 번역하여 이산이 출판한 《리오리엔트》라는 책이 그것으로서, 내용이 신선하고 깊은 의미까지 담고 있다. “1999년도 세계사학회 저작상, 2000년도 미국사회학회 ‘올해의 책’ 상을 수상했다”고 이희재가 밝힌 바와 같이 명저의 반열에 올려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책 말미에 실린 ‘옮긴이의 말’에 다 음과 같이 잘 요약되어 있다.

“유럽의 세계 지배는 1800년 이후 지금까지 길어야 200년 남짓 이어진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그때까지 세계경제에 중심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유럽이 아니었고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특히 중국이었다. 유럽은 오래 전부터 아시아의 풍부한 물산과 양질의 상품에 눈독을 들였다. 유럽이 대양항로 개척에 혈안이 되었던 것도 비단, 면직물, 도자기, 향신료, 차 같은 아시아 상품을 항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안전한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신대륙 발견을 통해 유럽에는 은이라는 노다지가 굴러들어 왔다. 그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돈도 부족하고 갖다 팔 수 있는 변변한 물건도 없어서 아시아 상품을 마음껏 구입하지 못했다. 은은 유럽의 갈증을 풀어주었다. 유럽은 신대륙의 은으로 아시아 열차에 오르는 승차권을 샀다.”(589쪽)

“서양은 아시아 경제라는 열차의 3등칸 표 달랑 한 장을 끊어 올라탔다가 얼마 뒤 객차를 통째로 벌리더니, 19세기에 들어서서 아시아인을 열차에서 몰아내고 주인 행세를 하는데 성공했다.”(591쪽)

옮긴이의 이런 말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알개 모르게 유럽중심주의 사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한 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다. 아 니, 필독서라고 해야 한다.

이 책을 읽은 내 감상에는 특별한 것이 더 있다. 우선, 지은이는 여러 저서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저서들의 저자들은 아시아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학자의 저서는 단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나라에 관한 언급은 구체적이거나 의미가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네 번 정도 다른 나라와 함께 ‘조선’과 ‘한국’이라는 단어가

《리오리엔트》 안드레 군더 프랑크 지음 | 이희재 옮김 | 이산 | 608쪽 | 값 25,000원

●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www.taeri.or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 《경제역적들이 들려라》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등이 있다.

언급될 뿐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사학회, 경제사학회, 사회학회 등에서도 영원히 소외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사학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더라 말인가!

무엇보다, 내 감상이 특별한 것은 지은이의 결론이 좀 엉뚱하기 때문이다. 동양이 서양에 뒤떨어지게 된 것은 “동양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했고, 이것이 기계의 개발을 막았다”고 결론 짓고 있는데, 이것이 영 마뜩치가 않았다. 동양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은 경제발전의 결과일 뿐이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경제발전을 촉발하는 동력일 수가 있다.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는 중국과 인도가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의 인구밀도는 그때보다 훨씬 높다. 즉,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이 산업화의 걸림돌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의 현실이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양이 서양에 비해 정체한 까닭은 무엇일까? 서양이 동양을 앞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좀바르트가 주장한 바와 같은 ‘유럽의 합리성’ 때문일까? 베버가 주장하듯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수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까? 진짜로 ‘자본주의의 기원은 유럽에 있고, 자본주의의 특징은 유럽적’일까? ‘유럽 이외의 종교들은 모두 신화적이고 신비적이고 마술적인 요소, 한마디로 반합리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 ‘합리주의를 몰랐기 때문에 아시아인은 자본주의를 발달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일까? 마르크스가 주장하듯이 유럽이 발흥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때문일까? ‘동양적 전제’가 ‘아시아의 정체’를 부른 것일까? ‘고루한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전통적이며 후진적이며 정체된 상태’를 불렀을까? ‘아시아 전 지역의 생산력을 영원한 무기력으로부터 각성시킨 것은 서양의 침입과 거기에 묻어온 자본주의였다’고 해야 할까?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 이 책은 ‘아니다’라는 답을 제시한다. 위에 열거한 질문 속 내용들은 ‘유럽 중심주의 또는 예외주의’의 산물일 뿐이며, 유럽은 19세기 이전에는 세계의 중심에 서본 적이 없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렇다면 유럽이 아시아를 뛰어넘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인구의 상대적 과잉’이 산업혁명과 유럽의 발흥

을 불렀다는 저자의 주장이 틀렸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윤곽이라도 밝혀야 한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은 서양이 동양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길을 한번 더듬어보자.

우선, 서양이 동양을 따라잡는 데에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은 15세기 말(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그들의 관점에서)했던 일이었다고 해야 한다(그 뒤로 쿡, 마젤란, 다카마 등이 세계로 향하는 뱃길을 열었다). 그런데 명나라 정화는 그보다 거의 1세기 전인 1405년부터 1433년까지 무려 일곱 차례의 원정을 통해 세계를 일주한 바 있다.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간 것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유럽의 코앞인 모로코까지 찾아갔다 돌아오기도 했다. 정화의 원정은 왜 명나라의 산업혁명 또는 경제발전을 촉진하지 못했을까?

다음으로, 서양이 총포를 앞세워 식민지를 개척했던 것도 유럽의 발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고려는 그보다 거의 1세기나 앞선 14세기 중후반에 화약을 무기체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었다. 최무선은 총포는 물론이고, 로켓무기까지 선보였으며, 왜구를 소탕하는 실전에도 사용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 그런데 왜 고려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올라서지 못했을까?

세 번째로, 유럽에서는 산업화와 문명화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금속활자의 발명을 꼽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12세기경에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구텐베르크보다 2세기 반이나 앞섰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금속활자의 역할이 크지 못했을까?

네 번째로, 도자기는 당시의 최첨단 산업이었고 18세기까지도 동아시아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다. 유럽은 도자기 제작에 필요한 온도인 1,200~1,300도까지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유럽의 과학기술은 낙후되어 있었다. 그 밖에 염료(현대 화학산업의 출발점)나 비단산업(고급 염료의 사용처)에 있어서도 서양은 동양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그런데 왜 동양은 산업혁명을 주도하지 못했을까?

내 답은 이렇다. 유럽에서는 위의 모든 일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경제적인 지위가 곧 사회적 신분을 결정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럽의 발흥을 불렀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이것을 증명한다. *******